

“K-방산, 네덜란드·스페인 등과 협력… EU 물량 따내야”

국방비 늘리는 EU

2030년까지 총 1355조 확대 목표
‘유럽산 인정’시 조달시장 진입하고
수명주기 정비 네트워크 기반 확대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방산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유럽산 인정 임계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법으로는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과의 핀셋형 현지화 협력이 거론된다.

11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FTI컨설팅이 지난 5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오는 2030년까지 총 8000억 유로(약 1355조원) 규모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EU 이사회는 지난 5월 유럽안보행동(SAFE)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SAFE는 회원국에 최대 1500억 유로(약 254조원)의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 공동조달 및 생산능력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다. SAFE 자금



현대로템 K2 전차.

/현대로템

으로 조달한 장비의 최소 65%는 EU·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되도록 규정해 역외 업체의 부품 비중이 35%를 넘기기 어렵게 설계됐다.

한국은 EU 대외관계정(EEAS)이 지난해 11월 채택한 ‘EU-한국 보안·국방 파트너십’에 따라 영국·캐나다·일본·노

르웨이 등과 함께 SAFE 공동조달 참여가 가능한 파트너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역외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지속 접근하려면 유럽 내 생산·정비·체계통합 역량을 확보한 현지 파트너 연계가 필수다. 전문가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단기간에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표 공

급국이 한국이라고 분석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유럽 NATO 회원국의 무기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6.5%로, 미국(64%)에 이어 프랑스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유럽산 인정(현지화 임계치) 확보에 성공할 경우 조달시장 진입은 물론 수명주기 정비(MRO) 네트워크와 후속지원 체계까지 연결되며 사업 기반을 넓힐 수 있다.

국방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네덜란드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독일·프랑스가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양산·수출하는 국가인 반면 네덜란드는 전투체계·센서 등 특정 첨단 분야에 특화돼 있어 대량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 상호보완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네덜란드 국방장관의 방산협력 언급과 한·네 방산 세미나 개최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탈리아 역시 유력한 협력 상대로 꼽힌다. 지난해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

서 열린 한-이탈리아 방산포럼에선 합정 전투체계·센서·데이터링크 등 ‘함의 두뇌와 신경계’에 대한 체계통합 협력이 논의됐다.

스페인은 재래식 무기 부품 수급과 훈련체계 운용 기반이 탄탄하다.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도 각기 강점이 달라 국가별로 핀셋형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유럽은 방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가성비·납기 경쟁력을 유지하되, 상대 국가별로 조정된 분업·현지화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 기술이전보다는 핵심 기술 보호를 전제로 협력 범위를 세분화하고, 패키지 딜에도 기술이전 수준·현지생산 비율·재이전(재판매) 제한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무기 현대화 수요 급증… K-방산, 중동시장서 ‘존재감’

한화에어로, 4000억 수주 4분기 반영
“연말도 견조한 성장세 이어질 것”

LIG넥스원, 3분기 천궁 수출 확대
중동 3개국 천궁 수출·수익 상승 예고

중동시장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존재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정과 군비 경쟁 확산으로 무기 현대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수출 실적을 쌓으며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키우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지역은 국방비 확대와 장비 현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방산 수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선 중동 국가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과 증가율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후 2033년까지 연평균 약 5.1%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시장 확대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4000억원 규모의 중동 유도무기 수주가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연말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LIG넥스원 역시 사우디아라비아향 천궁 수출이 2분기 730억원에서 3분기 830억원으로 늘었으며 2026~2028년에는 중동 3개국을 중심으로 한 천궁 수출이 전체 수출과 수익 비중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각국은 최근 미국·유럽연합(EU)의 수출 제한 강화 속에 방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개발 비전인 ‘비전2030’을 통해 방산 국산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이를 주도하는 군수산업공사(SAMI)가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현지 생산과

인 구축, 기술이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2019년 설립한 에지그룹(EDGE Group)을 중심으로 25개 민·군 방산 기업을 통합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 기술을 결합한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자국 방산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이 중동 각국이 자국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술 및 제조 기반의 한계로 인해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방산 수출국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은 다른 권역과 달리 역사, 종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에 맞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반 제조·수출 기업에 비해 여전히 지역별 정치·경제·사회·종교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부와의 공조 체계 강화도 강조됐다. 최근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산 특사로 파견된 만큼 정부 일정과 연계해 방산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며 윈윈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국가의 정치 일정이나 정권 교체도 수출 변수로 꼽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무기 거래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나 성능뿐 아니라 구매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폴란드 사례처럼 총선 이후 정책 기조 변화나 계약 재검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1면 ‘美 섰다운 종료 임박…’서 계속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보유중인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소비회복 기대감에 증권시장 자금 유입 국내 환율 안정될 듯

◆ 원·달러 환율도 ‘청신호’

섰다운 종료가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시장에선 위험자산에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데이터 블랙아웃’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달러로 몰렸던 자금이 다시 시장에 풀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섰다운 종료 및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섰다운 종료에 따른 환율 안정이 예상된다. 이번 섰다운이 장기간 지속되며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원화 약세)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11일 주간거래에서 장중 달러당 1467.5원까지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며 지난 4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단기간 조정 이후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에선 1380원대까지 하락(강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경제 지표 등 눈에 띄는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불투명하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의 섰다운 종료와 증시 호조 등 심리적 안정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달러화 흐름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섰다운 협상으로, 섰다운 협상이 타결되면 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되며 달러화 지수의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자금사정 악화땐 외식비·의류비 줄일 것”

데이터처, 2025 사회조사 결과
가구소득 증가 21.5%, 감소 19%
17.7% 부채 늘어나고 13% 줄어

국내 가구주들은 재정 상황이 나빠질 경우 가장 먼저 외식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의류비, 식료품비, 문화·여가비가 그 뒤를 이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 공기업, 국가기관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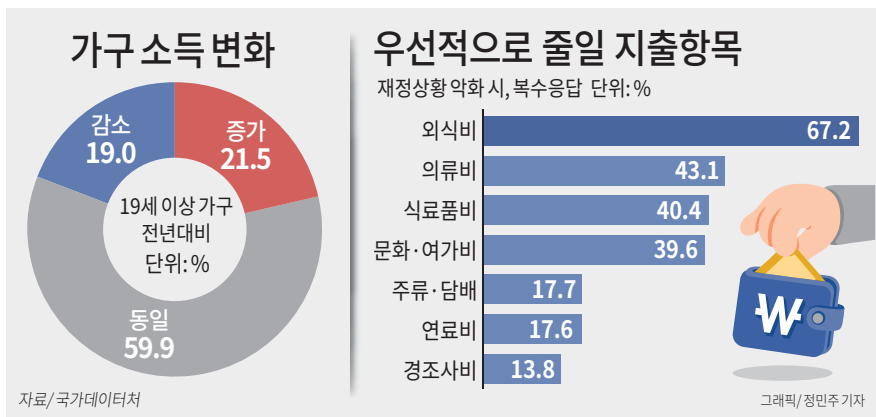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가구주 중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5%로 나타났다. 또 감소했다고 답한 비중은 19.0%, 동일하다는 응답은 59.5%였다.

가구 부채가 전년대비 늘었다고 답한 비중은 17.7%, 감소는 13.0%, 동일은 69.3%로 집계됐다.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년 전보다 1.3%p 증가한 27.0%로, ‘나빠질 것’(19.1%)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비관 응답은 1.8%포인트(p) 줄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재정 상태를 낙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식주와 여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은 24.6%로, 2년 전(21.2%)보다 3.4%p 상승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복수응답)으로는 외



식비가 67.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순이었다.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수입(40.0%)이 1순위였다. 이어 안정성(23.3%), 적성·흥미(13.5%), 근무환경(10.0%)이 뒤를 이

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수입과 안정성 순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13~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이 28.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공기업(18.6%), 국가기관(15.8%) 순이었다. 자영업(창업), 벤처, 중소기업, 해외취업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